

『딕테』와 미디어 예술: 상실과 소외의 메타포

박윤기*

-차 례-

1. 서론
2. 『딕테』: 망명과 소외 그리고 언어의 상실
3. 공연과 미디어 예술: 언어와 정체성의 문제
4. 디아스포라와 “폭력”으로서의 언어
5. “카오스 화술”과 차학경의 언어예술
6. 결론

[국문초록]

포스트모더니즘 실험소설로서 차학경의 『딕테』와 그녀의 미디어 예술작품은 언어학적 그리고 시각적인 난해함으로 작품이해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다분히 시적이고 추상적인 작품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은 몹시 크다고 할 수 있다. 『딕테』읽기가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작품에서의 카오스 화술 때문이다. 이 작품은 일반적인 문법에서 어긋나고 미디어용어와 다국적 언어를 혼용함으로써 단선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준다. 차학경은 『딕테』에서 다양한 인용, 표제가 없는 이미지, 편지, 복화술 등을 이용해 역사, 기억, 꿈, 우화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한다. 어린아이의 언어를 통해서 그녀는 어머니가 살아온 과정과 그녀가 살았던 고향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설명하려 한다. 텍스트에서 작가는 고국을 잃은 망명과 디아스포라가 언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언어가 망명자들이나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추적해나간다. 『딕테』와 차학경의 다양한 미디어 예술작품에서의 인물들은 고국을 떠난 망명자나 이주민들로서 그들은 동시에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들로 묘사된다. 결국 차학경의 작품에서는 그것이 『딕테』와 같은 문학작품이든 메일 아트, 공연, 오디오, 비디오, 영화, 설치와 같은 공연 예술 전반이든 디아스포라 이주자로서 가지게 되는 근원적인 상실감과 주변화 그리고 그로 인해 대두되는 말과 언어가 중요한 문제로 확대된다.

주제어: 『딕테』, 미디어 예술, 망명자, 디아스포라, 여성들, 언어, 상실감

1. 서론

테레사 학경 차(Theresa Hak Kyung Cha)(이후 차학경으로 표기함)는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나 1962년 하와이를 거쳐 1964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했다. 그녀는 고전 작품과 언어를 공부했고 UC버클리대에서 비교 문학 학사 및 예술 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학부과정에서 불어, 영화 이론, 공연 및 멀티미디어 예술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영화, 조각, 사진, 공연, 시 창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이 시기에 그녀는 서구의 모더니즘 및 포스트모더니즘 작품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녀는 영어, 불어, 한국어 등 언어에 재능이 있었고 마그리트 뒤라스(Marguerite Duras), 스테판 말라르메(Stéphane Mallarmé),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 장 루크 고다드(Jean-Luc Godard), 그리고 칼 드레이어(Carl Dreyer)와 같은 작가나 영화감독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장르를 다양하게 가로지르며 활동했고 서사와 이미지가 혼합된 『딕테』(Dictée)라는 독특한 콜라주 작품을 선보인다. 1982년 뉴욕에서 출간된 이 작품은 역사, 민족, 성별의 탐색을 통해 정체성을 탐구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 이 작품은 포스트식민주의, 페미니즘,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 분석되기 시작했다.

차학경은 『딕테』를 붓글씨·몽타주·도형·인용문·사진·영상과 같은 시각적인 요소를 한 데 혼용하고 융합한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의 실험소설로 완성한다. 무엇보다 그녀는 이 작품을 통해 영어·불어·한국어·라틴어·한자를 혼용하는 이른바 언어와 문자를 통한 창의적인 글쓰기를 시도한다. 하지만 이는 현학적인 지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과는 거리가 멀다. 차학경은 몇 가지 언어를 혼용한 글쓰기의 시도에서 각각의 언어에 대한 자신의 불편함을 숨기지 않는다. 그녀는 작품에서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길 때 흔히 발생하는 미묘한 의미변화 혹은 왜곡을 포착한다. 『딕테』에서 여러 언어를 혼용한 것은 그녀가 망명과 디아스포라로 인한 결과를 보여주하고자 함이며 동시에 망명자 혹은 디아스포라 주변인의 불안정하고 불안정한 의식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렇듯 그녀의 작품이 망명과 디아스포라 그리고 언어의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에 없는 이유는 그녀의 가족 모두가 망명과 디아스포라의 경험과 그로 인한 언어의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딕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녀의 예술작품은 거의 모두 언어, 음성, 정체성, 불안감, 상실 등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그녀는 아방가르드적인 영상이나 공연¹을 직접 주도하기도 하는 등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작가로서의 위상도 공고히 했는데, 그녀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2년 31세의 나이로 짧은 삶을 마치기 전까지 “변위”(displacement)와 “상실”(loss)을 탐구하는 풍부한 개념 예술을 창조했다. 그녀의 작품에는 서적, 메일 아트, 공연, 오디오, 비디오, 영화, 설치예술이 모두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차학경의 퍼포먼스는 프랑스의 정신 분석 영화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예술은 동양의 샤머니즘으로부터 유교와 천주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적, 상징적 정보와 참조가 폭넓은 바탕이 된다. 따라서 그녀의 작품이 정확히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단정 지어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그녀의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영상은 난해한 이론과 시적인 함축성이 특징인데 그녀는 공연, 연설, 그리고 텍스트 등을 활용하여 언어와 그것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기억과의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탐색했다. 그녀는 엄격한 분석에 근거한 치밀한 영상작업을 하지만 그때그때의 심리적인 흐름에 따라 그것의 즉흥적인 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차학경의 삶을 추적하면 그녀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고 주류가 아닌 비주류 주변인으로서 어느 정도 강요된 침묵을 경험했는데, 이는 그녀의 글, 영화, 슬라이드 프로젝트, 공연예술을 포함하는 대개의 작품에서 디아스포라 이주자로서의 혼란함과 언어의 상실감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차학경의 작품에서는 그것이 『딕테』와 같은 문학작품이든 메일 아트, 공연, 오디오, 비디오, 영화, 설치와 같은 공연예술 전반이든

1 <비밀 유출Secret Spill>(1974, 27분, 디지털 비디오), <입에서 입으로Mouth to Mouth>(1975, 8분, 디지털 비디오), <치환Permutation>(1976, 10분, 디지털 비디오로 전송된 16mm 필름), <비데 오 엠Vidéoème>(1976, 3분, 디지털 비디오), <다시 사라짐Re Dis Appearing>(1977, 3분, 디지털 비디오), <몽골에서 온 흰 먼지White Dust from Mongolia>(미완성 영화, 1980, 30분, 16mm 필름을 디지털 비디오로 전송). 참고: 차학경의 비디오는 극장 환경이 아닌 CRT TV 모니터에서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디아스포라 이주자로서 가지게 되는 근원적인 상실감과 그로 인해 대두되는 말과 언어가 중요한 문제로 확대된다. 디아스포라의 상황이 말과 말이나 언어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인 것은 본디 말과 언어는 국가·민족·개인의 삶과 밀접한 것이기도 하고 국가·민족·개인 모두의 정체성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딕테』를 중심으로 그녀의 다양한 “퍼포먼스”(performance)에서 반복되는 망명과 디아스포라, 언어의 상실과 트라우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집중할 것이다.

2. 『딕테』: 망명과 소외 그리고 언어의 상실

차학경은 『딕테』를 통해 한국인의 경험과 역사에 대해 말한다. 한국인은 처음 유럽과 일본이라는 제국주의의 희생자가 되었고 미국과 소련의 개입으로 해방을 맞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 의해 다시 또 분할되는 아픔을 겪는다. 이후 그들은 한국전쟁이라는 내전을 겪으며 가늠할 수 없는 희생과 아픔을 겪으며 이후에도 냉전이라는 혹독한 시련기를 견뎌야 했다. 이렇듯 한국인은 20세기 초중반 내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는 상당한 것이었다. 그들의 이 같은 시련과 고통은 결과적으로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제각기 흩어지도록 하는 디아스포라를 낳게 되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결행했던 디아스포라의 삶은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결국 『딕테』는 조국을 상실한 디아스포라의 망명자 혹은 이주자의 이야기인데, 작품의 화자인 여성들에게 “나라를 잃어버린/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빼앗기/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숙한 모국어/언어의 상실이라는 트라우마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Cooley 120). 이에 『딕테』에서의 망명과 이주의 의미는 언제나 언어와 연관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망명/이주와 낯선/새로운 언어와의 갈등이고 그로 인한 인물들의 트라우마라 할 수 있다.

『딕테』의 인물들은 “고향을 떠나면서 조국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언어도 잃게 되었다. 언어의 상실은 그들이 고국을 떠나면서 잃게 된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등에 비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기도 했다”(Ferens 27). 더욱이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방인으로서 낯선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그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에서 그 언어의 특징을 먼저 분석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어색함이 수반된다. 『딕테』의 화자는 자신의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길 원하지만 식민지 상태에서 모국어 발화가 금지당한 상태에서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이후 고국을 떠나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며 디아스포라의 주변인적 위치로 격화된 자신을 발견한다. 이제 그녀는 이전의 식민 상태에서의 강제는 아니지만 생존에 필요한 낯선 언어사용을 또 다시 강요받는다. 여기서 차학경은 화자를 통해 각 언어 간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차이”에 주목한다. 그녀는 『딕테』를 통해 모국어 상실로 인한 혼란과 트라우마라는 문제에 집중하고 디아스포라 망명자로서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서 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접하게 된 또 다른 언어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와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시선을 집중시킨다.

한국의 식민역사와 그로 인한 망명자로서의 삶의 경험이 『딕테』의 언어가 왜 그렇게 조각나고 파편화된 형태로 쓰일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해 준다. 텍스트의 화자는 모국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고 싶어 하지만 망명과 이주 그리고 낯선 언어의 내키지 않는 강요에 혼란을 경험한다. “모국어는 국민으로서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언어는 국민의 위상을 유지시켜주고 그들의 권위를 더욱 강화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인 위상을 지닌다”(Lamm 46). 이처럼 모국어는 언어와 국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내재적인 힘으로써 작용한다. 언어는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그것의 발원지인 모국과 연결시켜 줄 뿐 만 아니라 언어사용자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실제로 차학경은 언어가 국가·민족·개인의 위상이나 정체성과 어떻게 긴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텍스트의 제목이기도 한 “딕테”는 외국어를 가르칠 때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아쓰게 시킨다는 불어의 의미인데, 이

는 동시에 한 국가·민족·개인이 자기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강제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Lamm 49). 차학경은 『딕테』에서 언어가 강제당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영어·불어·라틴어·한국어라는 다언어를 혼용한다. 하지만 화자에게 이들 언어는 텍스트 전체에 혼란스럽고 파편화된 상태로 편재하며 각 언어 간 의미의 호환성이 불충분하다. 화자는 각 언어 사이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차이를 인식한다.

3. 공연과 미디어 예술: 언어와 정체성의 문제

차학경은 공연이나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영상예술을 통해서도 디아스포라 이주자로서의 언어에 관한 문제에 집중했다. “미디어로서 언어에 대한 천착은 차학경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주제이다. 비록 짧은 생애도 불구하고, 언어와 미디어를 통한 예술적 알레고리는 당대와 후대의 수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었다”(김종국 57). 그녀의 미디어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위”와 “파열”(rupture)이라는 주제는 피터 볼코스(Peter Voulkos), 제임스 멜처드(James Melchert), 크리스티앙 메츠(Christian Metz), 레이몽 벨루(Raymond Bellour), 티에리 쿤젤(Thierry Kuntzel) 등과의 협업으로 세련된 형태로 조율된다. 그녀는 “구상시”(concrete poetry)²나 한국의 전통문화 및 “개념미술”(conceptual art)³과 같은 다양한 출처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독창적인 작품 활동을 하였고 이는 이후 현대예술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그녀는 하이브리드 작품인 『딕테』로 가장 잘

2 “구상시”란 단어, 음절, 철자, 철자의 부분, 구두점을 시각적으로 배열해서 효과를 얻는 시로 어원은 1950년대의 세계적인 운동이었던 구체주의에서 나왔다. 어의적 의미나 음질은 무시한 채 공간적인 도안을 강조하기 때문에 종종 색채를 쓰거나 인쇄 외의 다른 매체를 쓰기도 한다.

3 “개념미술”은 주로 장인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수공예 의한 기존의 예술로부터 탈피한 새로운 형식의 예술형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완성된 작품 그 자체보다는 작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의 아이디어나 콘셉트를 보다 더 중요시하는 예술제작의 태도나 장르를 일컫는다. 마르셀 뒤샹이 선구자이고 미국의 팝 아트를 대표하는 거장인 앤디 워홀이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알려져 있지만 공연 영상이나 퍼포먼스 작가로서의 활동도 활발했고 이들 작품 역시 『디테』와의 연속선상에서 연관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차학경의 예술작품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이 두드러지고 있는바 작품에 대한 분석이나 단일한 개념정의가 녹록하지는 않다. 하지만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각각의 작품에서 또 하나의 공통분모를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품이해에 실마리를 덧붙이는 것은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이다.

먼저 그녀의 작품 중 <비밀 유출>(Secret Spill)(1974)은 들은 것과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과열에서 나온 긴장감을 기록하는 공연이다. <입에서 입으로>(Mouth to Mouth)(1975)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모음이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그녀의 입은 벌리고 오므리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O"의 모양을 형성한다. 그녀는 화면에 벌리고 오므리는 형상을 반복함으로써 언어가 시작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구조주의의 작품인 <치환>(Permutations)(1976)에서는 작가의 여동생을 주체가 되며 차학경 본인이 직접 한 프레임에 등장하기도 한다. 말하기와 언어에 대한 명상작품인 <비데 오 엠>(Vidéoème)(1976)은 영어와 프랑스어 단어를 병치하여 관계와 의미가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을 포착한다. <다시 사라짐>(Re Dis Appearing)(1977)에서 작가는 단어들을 말하고 프랑스어로 재빨리 반향되는데 의미 파악이 쉽지 않다. <몽골에서 온 흰 먼지>(White Dust From Mongolia)(1980)는 필름과 책 모두를 포함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영상에는 서울, 옥상, 여대, 비밀의 궁전, 호텔 화재가 담겨있고 또한 말과 언어가 있다. 그런데 이렇듯 얼핏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들 작품에서 영상과 언어 그리고 예술적 퍼포먼스를 위한 몸은 상호작용과 소통의 요소로써 작용한다. 사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반복적인 말 걸기와 소통의 방식은 차학경의 작품에서 가장 큰 특징이다.

차학경의 퍼포먼스 작품인 <눈먼 목소리>(Aveugle Voix)(1975)는 흑색으로 스텐실 된 흰색 천이 그녀의 눈과 입이나 머리를 완전히 감싼 모습이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그녀가 쫓그리고 앉은 채 “눈먼 목소리”라는 글자가 쓰인 형겅으로 각각 눈과 입을 가린 채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이다. 퍼포먼스든 영상이든 그녀의 작품에서 언어와 말하

기 그리고 말을 만들어 가는 과정과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녀가 나타내려고 하는 바는 낯선 땅에서 망명자/주변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특수한 위치에 대한 조망이다. 그녀가 1963년 이민자인 부모를 따라 하와이에 처음 도착한 때는 이미 12세의 나이로 한국에서의 교육을 몇 년간 받았던 때이다.

따라서 그녀는 당시 모국어인 한국어를 “능숙하게” 말할 수 있었다. 그녀의 가족이 미국으로의 이민을 결정하게 된 것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한국전쟁 등 불행한 과거와 위협한 상황을 겪으면서 보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공간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

1975년의 이 퍼포먼스에서 차학경은 불어로 “목소리Voix”라고 쓴 띠를 머리에 그리고 “눈먼Aveugle”이라는 단어가 쓰인 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불편한 모습으로 쪼그리고 앉아 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두루마리로 감겨 있는 천이 놓여 있는데 퍼포먼스의 연속선에서 그것을 펼치면 “눈먼”, “목소리”와 더불어 “없는sans”, “단어mot”, “나me”라는 단어가 차례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때 퍼포먼스를 보는 관객은 “눈먼목소리”, “말 없는”, “내가 없는” 등의 단어를 보면서 개인에게 언어가 지니는 중요성을 재고하게 되고 “언어는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분리를 수반하는 것이며 그것이 개인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구축하는 핵심요소”(김현주 345)임을 인식하게 된다.



<눈먼 목소리>(1975)

차학경은 가족과 함께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옮겨가면서 미국의 학교에서 영어로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녀는 탁월한 언어능력으로 제2의 언어인 영어를 비교적 쉽게 습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서 미국식 억양이나 어법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익숙해지는 노력이 필요했다.

차학경은 또 다른 외국어로 불어까지 배우게 되면서 1976년 과리에 8개월간 머물게 되었고 이 시기엔 불어 공부에 집중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모국어인 한국어를 할 기회를 점점 더 잃어갔다. 그녀는 한국어에서 멀어지고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디아스포라의 상황에 따른 결과이고 그녀의 <망명자>(Exilée)에서도 구체화된다. 한국을 떠난 이민자로서 미국과 프랑스처럼 다른 문화와 영어와 불어와 같은 다른 언어에 대한 적응과 수용은 그녀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 어떤 면에서 <망명자>는 그녀의 작품 중에서 모국을 떠난 이산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치환>(1976)

이 작품은 “망명자”라는 의미를 해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처음 망명자란 뜻의 불어인 “EXILÉ”가 나타나고 그다음으로는 “섬”을 뜻하는 단어 “ILE”가 잇따른다. 그런 다음 불어의 어미인 ㅆ와 영어의 E가 나오고 이어서 낱말이 나란히 배치된다. 이를 통해 “차학경은 망명자의 이미지를 섬으로 연산시킨다. 고립된 존재. 부유하는 존재. 그녀의 망명의식은 유목주의(nomadism)로 파악된다”(정재형 66). 그리고 그녀의 망명의식은 모국어의 상실과 결부된 이름에 대한 천착으로 이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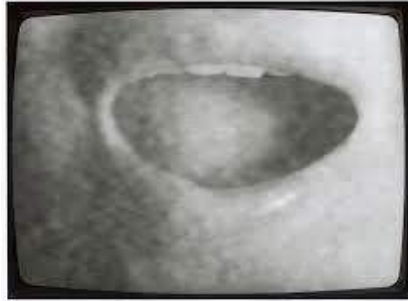
다. “이전. 이름 이전. 이름 없었음. 다른 누구도 아님. 주어진 이름 아닌 그 누구도 아님. 성. 부재. 이름. 이름 없이. 모르는 이름. 이름 없음. 이름 사이. 부재한 이름. 명명됨.” 하지만 망명자로서 새로운 언어체계에서 이미 낯설게 된 자기 이름의 “부재”는 정체성의 탐색으로 이어진다. 그녀의 차학경의 정체성 탐색은 그 방향이 자신을 있게 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태어난 바로 그 조국과 조국의 역사 그리고 조국의 국민들에 대한 것이다.

4. 디아스포라와 “폭력”으로서의 언어

차학경은 『딕테』에서 국가와 민족 그리고 조상과 그들의 역사 연구를 통해 공동체적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조국이 없는 민족은 없고, 조상이 없는 민족도 없다”(Dictée 28). 그런데 <망명자>에서 차학경은 자신이 살고 있는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와 모국인 한국과의 거리를 빛과 시간의 흐름과 차이로써 인식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광의 끝까지 빛을 쫓는다. 이곳보다 16시간이 앞서 있는 곳.” 이렇듯 그녀는 디아스포라의 환경에서 망명자이자 주류문화권에서 다소 소외된 주변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의식하고 있었다. <망명자>에서는 저속으로 촬영된 영사기의 영상이 스크린 전체를 채우는데 영상에서는 영어와 불어의 중간텍스트가 등장하고 영어와 불어의 혼합된 목소리가 들린다. “이방인으로서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낮선) 언어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에게 있어 “영어, 불어 등의 다언어를 반복하고 혼용하는 방식은 이중적 정체성에 대한 환유적인 표현”(김종국 48)이다. <치환>에서는 눈을 뜨고 있는 얼굴과 눈을 감은 얼굴 그리고 뒤돌아서 뒷머리의 모습만 보이는 흑백의 영상이 반복되는 작품이다. 영상의 주인공은 차학경의 여동생이지만 짧은 순간 차학경 자신의 모습으로 “치환”되며 다시 본래의 얼굴로 돌아간다.

비디오 녹화물인 <입에서 입으로>는 한글 모음의 모양을 하나씩 천천히 발음하는 입술의 모양을 보여준다. 입은 안개를 통해 시청자에게

나타나면서 격렬한 “백색소음”(white noise)⁴이 들리다 서서히 사라진다. 이렇듯 이 작품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소리가 아닌 물소리나 바람 소리처럼 백색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언어적 의미에 대한 추론을 방해한다. 여기서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음의 “O”는 일종의 “침묵”으로 그 발음 자체적으로는 중요한 소리가 아니다. 차학경은 초기 이민자로서 서로 다른 언어를 접하며 디아스포라의 분산과 분열의 상황을 강요받았다. 그녀에게 낯선 언어는 물과 바람과 같은 일종의 백색소음의 그것이었다. 모국어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녀에게 침묵의 강요였고 새로운 언어는 파편과 소음으로 가득 찬 백색의 소음이었다.



<입에서 입으로>(1975)

결국 “<입에서 입으로>는 문자언어와 음성언어 사이의 긴장 관계, 소리와 이미지 사이의 충돌 및 불일치 등 언어 자체에 대한 고찰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내용이나 의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것을 발화하는 이민 여성의 상황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덕테』를 포함한 다른 작품에서도 자주 반복되는 주제로 일체 강점기 우리말 사용을 억압당했던 한민족의 경험과 영어가 서툴렀던 한국계 이민자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병치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서경

4 백색소음이란 이름은 백색광에서 유래했다. 백색광은 모든 색의 빛(가시광선)이 혼합된 빛이다. 다양한 파장(색)의 빛이 모두 모였으므로 정해진 파장이 없고 빛의 합성 원리에 따라 흰색을 띤다. 백색소음도 백색광처럼 다양한 소리가 혼합되어 넓은 음폭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붙은 이름이다.

속 105, 2013). 언어는 역사와 민족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다. 그것에는 정서적 공감대가 담겨있으며 발화되는 단순한 음소보다 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언어는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요소로써 작용한다. 따라서 언어를 잃거나 잇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잃는 것이며 역사를 잃는 것이고 정체성을 잃는 것이고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강요된 폭력이 될 수 있다. 차학경은 여러 형태의 미디어와 언어 및 역사적인 자료를 통합한 1982년의 『딕테』라는 작품에서도 시간과 기억의 문제와 더불어 언어의 문제에 집중한다. 모국어가 아닌 “낯선 언어를 배워야 하는 사람은 그 언어의 지배적인 힘으로 인해 자신의 무력감을 체험하게 된다”(김지하 90). 이 지배적인 힘을 견디기 위해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받아쓰기를 통한 규칙의 습득이다.



Theresa Cha's *Dictée* as a Montage

차학경의 ‘딕테 *dictée*’ 그리고 그녀의 『딕테』에는 식민시대 지배자들의 강요된 언어를 말하고 쓰도록 강요받는 피식민지인의 고통스런 의식이 드러난다. 그녀는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그들의 언어를 강요받는 한국인들의 고통을 찢어지는 육체의 고통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 의미가 담겨있지 않은 목소리의 흉내일 뿐이다. “그녀는 말하기를 흉내 낸다. 그것은 웅변과 닮았다. (구태여 말하자면 그렇다). 발가벗은 소음, 신음, 조각조각 찢긴 말들. 그녀는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주저하면서 입 모양을 그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다”(*Dictée* 3).

“인위적인 언어학습은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다. 차학경은 새로운 언어를 위해 모국어로 이미 굳어져 버린 발음기관을 억지로 교정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되는 여성의 육체를 묘사함으로써 언어가 지닌 억압적 본성을 은유하고 있다”(서경숙 272, 2006). 불어로 “받아쓰기”라는 의미의 ‘딕테’는 지시와 순종이라는 강요된 행위이다. 그런데도 “받아쓰기는 말을 하는 행위도 아니고, 쓰는 행위도 아니며, 읽는 행위도 아니다. 받아쓰기의 주체가 있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대리자, 보조자, 종속자일 뿐이다”(민은경 135-36). 그리스 신화에서의 뮤즈를 중심으로 한 9개의 장은 각각 소설, 산문시, 전기 및 사진첩 등의 형식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가부장적 폭력과 제국주의 및 종교적 폭력에 맞섰던 여성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각각 차학경의 어머니인 허형순, 독립열사 유관순, 프랑스의 순교자 잔다르크(Joan of Arc)로 대변된다.

이처럼 『딕테』에서 작가가 그리고 있는 주인공들은 나라를 상실한 후 망명자로서 모국어 또한 잃게 된 여성들이다. 따라서 텍스트에서의 망명의 의미는 언제나 언어학적인 의미와 연관되어 논의되는 것이다. 결국 언어가 작품의 중심적인 주제가 된다. “집(국가)을 잃었다는 것은 언어로부터도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의 언어는 불완전하며 그들이 쓰는 글도 불완전하다”(Williams 94). 이보다 앞서 차학경은 <몽골에서 온 흰 먼지>라는 영화프로젝트에서 권위주의 정권으로 인한 한국인들의 침묵이라는 고통과 불안정 그리고 망명이라는 또 하나의 강요된 폭력을 묘사한다. 작가는 그들이 목소리와 언어를 잃게 된 것은 가부장적, 제국주의적, 정치나 종교적인 폭력의 결과로써 보고 있으며 이는 디아스포라의 원인이자 그로 인한 이산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강요받는 새로운 언어의 습득이라는 폭력으로 치환된다.

5. “카오스 화술”과 차학경의 언어예술

이처럼 차학경의 “『딕테』의 언어는 공연이나 영상예술에서의 표현과 더불어 국가라는 개념과 밀접히 연관된다. 실제로 “<입에서 입으

로>에서 차학경은 이미지를 흐리는 수법으로 시간에 따른 언어의 상실을 표현하고 있으며, <비데 오 엠>이나 <망명자>와 같은 영불 혼성어 제목은 이주에 따른 언어적 혼란을 그대로 암시한다.” 그녀에게 있어 영상이나 공연예술 등의 퍼포먼스는 “영어습득에 따른 한국어 상실의 상황을 언어적, 텍스트적, 매개체적으로 변형시키는 작업이다”(김홍희 77). 이렇듯 그녀의 작품에서 언어(단어)는 개인의 삶을 결정짓는 한 나라의 역사 및 정치적인 상황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모국어는 국민으로서의 권위의 근거를 마련해준다. 모국어란 그 언어를 말하는 국민의 위상을 유지시켜주고 그들의 권위를 더욱 강화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인 위상을 지닌다”(Lamm 46). 결국 모국어란 언어와 국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한데 이어주는 내재적인 힘으로써 작용한다.

언어는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그 언어의 발원지 국가를 연결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언어의 상실은 그들이 잃게 된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등에 비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고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기도 했다”(Ferens 27). 나라를 잃고 언어를 잃은 고통은 트라우마로 굳어지는데, 그러한 과정은 디아스포라 이주민이 되어 낯선 언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차학경은 『딕테』에서 4개의 언어-한국어, 불어, 영어, 라틴어-를 활용되지만, 그녀는 각각의 언어사용에 있어 불편함을 숨기지 않는다. 작품에서 그녀는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길 때 벌어지는 의미상의 미묘한 변화/왜곡을 포착한다.

아서 W. 프랭크(Arthur W. Frank)는 그의 저서 『상처 입은 이야기 작가: 몸, 질환, 그리고 윤리』(*The Wounded Storyteller: Body, Illness, and Ethics*)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질환에 관해 유형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한다. 프랭크는 그들의 이야기 중 “카오스 화술”(the chaos narrative)에 주목하는데, “그것은 원인파악이 어렵거나 인과관계가 잘 설명되지 않은 질병으로 인생의 술한 트라우마가 중첩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Frank 97). 그에 따르면, 카오스 화술은 “삶의 근본이 우연적인 사건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힘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Frank 102) 발생한다. 『딕테』의 서술구조는 프랭크가 분류한 “카오스 화술”을 연상시키는데, 실제로 작품을 보면 훼손되기 쉬운 신체에 대한 묘사(해체된, 불구가 된, 멍든, 총탄에 노출된)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학경은 몸에 대한 묘사에서 그것이 말을 하지 못한다고 언급하며 무언가 표현하고 싶더라도 혀가 잘려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녀에게 있어 언어의 불안정성은 신체가 균열, 골절, 파괴, 파쇄, 손상된 것에 다름없다. 이렇게 보면 『딕테』에서의 4개의 언어를 통한 서술과 그러면서도 결코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는 작가의 서술기법은 “말(언어) 속의 나 있는 구멍인 카오스 화술”(Frank 102)으로 볼 수 있다.

디아스포라 망명자로서의 삶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의 삶에 비유할 수 있는데, 수잔 손탁(Susan Sontag)은 질병에 대해 아프지 않은 나라에서 아픔의 나라를 오가는 여행에 비유한 적이 있다. 그녀는 회복기에 있는 환자를 “영구비자를 가지고 있지만 갱신이 필요한 상태”(Sontag 9)로 보았다. 수잔 손탁의 이러한 비유를 받아들인 페렌스(Ferens)는 포스트콜로니얼 이주민들의 현실을 비자갱신이 필요한 환자와 같은 처지에 비유한다. 그는 이주민들의 삶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자신들의 상태를 스스로 치유할 수도 누군가에게든 치료를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Ferens 28)이라고 말한다. 파티 던컨(Patti Duncan)은 『딕테』에서 차학경이 공간, 형식, 시 장르 등을 실험한 것이 “화술의 단절과 고정되지 않은 경계선”(131)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기법이라 주장하는데, 이 작품의 소재가 조각난 역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역사의 단절은 화술의 단절, 즉 언어의 단절과 관계가 깊다.

따라서 『딕테』에서의 언어는 더듬대듯 불확실한 말들의 연속이다. 그리고 실제로 작가 자신도 자기 언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동강난 말. 하나씩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금이 간 혀(말). 부서진 혀(말). 뒤섞인 말. 말 비슷한 말”(Dictée 75). 그녀는 또한 「엘리테레」(“ELITERE”) ‘서정시’(LYRIC POETRY)를 통해서 상실한 언어에 대해 “죽은 낱말들, 죽은 언어.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시간의 기억 속에 묻혀 있는”(Dead words, Dead tongue, From disuse. Buried in Time’s memory)(Dictée 133) 것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그녀의 대표작인 『딕테』라는 포스트모더니즘 텍스트와 거의 모든 공연이나 영상예술 등의 퍼포먼스에서 반복되고 있는 주제는 모국의 상실과 디아스포라 망명자로서의 소외라는 메타포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익숙한 언어의 상실과 낯선 언어의 “강요된” 받아쓰기로 치환된다.

6. 결론

차학경은 디아스포라 이민자로서 1969년 UC 버클리 대학에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비교문학사를 포함하여 미술과 예술 분야에서 4개의 학위를 받았다. 그녀가 공부할 시기의 대학의 캠퍼스는 베트남 반전운동의 현장이자 여성, 민족, 동성애자, 레즈비언 등 다양한 해방 운동의 온상이었다. 이로 인해 대학에서는 여성이나 민족 문제에 관해 연구하는 새로운 학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나 미술 등 예술 전반에 걸쳐 지적인 호기심이 넘쳐났던 그녀는 시각 및 공연 예술, 민족 연구, 아시아계 미국인 연구, 여성 연구, 영화, 문학과 언어학에 깊이 몰입했다. 당시는 예술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일례로 비디오의 출현은 실험 작업에 대한 그녀의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는 사이 그녀는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비디오 아티스트인 부르스 나오맨(Bruce Nauman), 프랑스 영화 이론가들, “다다이즘Dadaism” 및 러시아 구성주의자들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녀는 또한 ‘UC 버클리 퍼시픽 필름 아카이브’에서 3년간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영화에 대한 안목도 키운다. 그녀는 그곳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전통적인 고전 영화와 혁신적인 아방가르드 영화를 보면서 퍼포먼스나 영상 및 소리와 언어에 예술적인 감성도 키워나간다. 그런데 차학경은 어린 시절 미국에 이주해온 디아스포라 망명자로서 가장 먼저 겪게 된 기존언어의 상실과 새로운 언어의 습득이라는 강제에 노출된다. 디아스포라와 언어의 상실 그리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라는 문제는 본 논문에서 강조해서 다루었던 주제였는데, 차학경은 자신을 포함해 어머니와 할머니가 경험했던 망명과 이주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것

을 디아스포라의 상황과 언어의 문제를 연결시킨다. 그녀는 조국의 상실과 언어의 상실 그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해 데메테르(Demeter)와 페르세포네(Persephone)의 신화를 인용하면서 어머니인 허형순과 유관순 열사의 삶을 연결시켜 설명한다. 결국 작가인 차학경에게 있어 한국의 격동기 근대역사와 디아스포라 망명자로서의 상황은 그녀의 모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자 소재가 된다.

그녀는 『딕테』를 비롯한 비디오, 영화, 설치와 같은 공연 예술 등 대개의 퍼포먼스 작품을 통해 조각나고 파편화된 언어를 강조한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여러 나라의 언어를 한꺼번에 구사하면서도 의사전달이 왜 만족스럽지 않은지와 그러한 언어들이 왜 파편화된 형태로 나열되며 의사전달이 불분명한지를 보여주려 한다. 그녀는 결국 이들 작품을 통해 언어가 어떻게 국가나 민족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는가를 설명한다. 이렇듯 차학경은 그녀의 거의 대부분의 작품을 통해 디아스포라 망명자들에게 다국적 언어의 구사는 재능의 과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동시에 그녀는 역사와 단절된 언어는 어느 것 하나 의사전달에 있어 만족스럽지 않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려 한다. 그녀의 대표작인 『딕테』에서 텍스트의 제목인 “딕테”는 외국어 등을 가르칠 때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아쓰게 시킨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바는 “어느 한 국가가 자기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배우도록 강제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Lamm 49). 그렇다면 “차학경에게 있어 교실 수업에서의 “받아쓰기”(dictation)는 결국 (의미를 강요하는) “독재”(dictatorship)와 크게 다르지 않다“(Ferens 29). 이 작품은 영어, 불어, 라틴어, 한국어 등이 산만하고 편제된 상태로 사용되는데, 이는 각각의 언어와 언어사용자의 정체성이 일치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본론을 통해 확인한바 『딕테』는 역사적인 상황에서 망명과 이주 그리고 이산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트라우마와 더불어 모국어와 새로운 언어 사이의 긴장을 다루고 있다. 물론 이는 정체성, 문화, 역사, 신화, 인종적인 문제 등등이 함께 논의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주제이다. 그녀는 나라를 잃고 개개인이 감당했어야 피식민자로서의 트라우마를 모국어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그 결과로 이어지는 정신적 트라우마와 동일 선상에서 놓고 비교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 작품을 통해 여성들의 연대를 강조하고 그들의 힘으로 죽은 언어를 부활시킬 가능성을 동시에 이야기한다.

차학경은 『딕테』의 한 장인 「엘리테레」 ‘서정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기억을 회생시키고 말하는 여자, 땅속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때마다 봄을 회생시키는 딸인 여자(페르세포네). 잉크를 진하게 묻혀 마르지 않도록 하고 글쓰기도 멈추지 않도록 하는자”(Dictée 133)라고 말하는 데, 이는 여성의 언어와 여성화술의 힘과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다. 그런데 제국주의적 폭력에 의한 모국어 사용의 단절과 디아스포라 망명자로서 낯선 언어의 강제와 “받아쓰기”의 주제는 비단 포스트모더니즘 작품인 『딕테』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그녀는 이 작품에서도 기존 문자 중심의 전통적인 텍스트 안에 미디어 영상을 혼용함으로써 기존의 문학적·역사적 전통에서 벗어나는 포스트모더니즘 글쓰기를 시도했지만 이외에 다른 공연이나 영상예술과 같은 미디어 예술을 통해서도 디아스포라 망명자들의 상실과 소외 그리고 언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망한다.

[ABSTRACT]

Dictée and Artistic Media As a Metaphor for Loss and Marginalization

Park, Yunki(Paichai University)

As a postmodern experimental work of art, Theresa Hak Kyung Cha's *Dictée* and her artistic media leave the readers struggling to find a way out of a very perplexing linguistics and visual maze. Characteristic of her exceptionally poetic and conceptual works is an intense engagement with language. One of the difficulties with understanding *Dictée* is its chaos narrative technique, which is the most embodied form of story. With its violations of English grammar, use of mixed media, multiple languages, and other seemingly random elements, *Dictée* radically disjointed poetics resisted easy identification. *Dictée* is composed of quotations, uncaptioned images, letters, and ventriloquized voices, interspersed with what appear to be Cha's reconstructions of history, memories, dreams, and parables. Using simple, child-like language, the persona tells the reminiscence of her mother in association with sustenance and home. Exile and diaspora in the text operate on a linguistic level. The women as characters in *Dictée* and Cha's artistic media are foreigners, exiled from their homes and therefore from their national language. The "loss of homeland" is central to *Dictée* and her various media such as artist' books, mail art, performances, slide shows, film, video, and installations. And the

loss of homeland is always connected to a loss not simply of a native land but of language on both literal and a figurative level. *Dictée* and Cha's artistic media as poetic configuration basically serve as a metaphor for loss and marginalization.

KeyWords: *Dictée*, artistic media, exile, diaspora, women, language, loss

[참고문헌]

■ 기본자료

- Cha, Theresa Hak Kyung. *DICTEE*. California: U of California, 2001. Print.
- Duncan, Pratti. *Tell This Silence: Asian American Women Writers and the politics of speech*. Iowa City: U of Iowa Press, 2004. Print.
- Cooley, Nicole. "Japan Has Become the Sign." *Postmodernity and Cross-culturalism*. ed. Yoshinobu Hakutani. Ontario: Associated UP, 2002. Print.
- Ferens, Dominika. "Narrating Chaos: Theresa Hak Kyung Cha's *Dictee* and Korean Fragmentary Writings." *Anglica Wratislaviensia*. 57 (2019): 25-35. Print.
- Frank, A. W. *The Wounded Storyteller: Body, Illness, and Ethics*. 2nd ed. Chicago: U of Chicago P, 2013. Print.
- Joo, Hee-Jung and Christina Lux. "Dismantling Bellicose Identities: Strategic Language games in Theresa Hak Kyung Cha's *DICTEE*." *Journal of Transnational Studies*. 4.1 (2012): 1-18. Print.
- Li, Florence Hsiao-ching. "Imagining the Mother/Motherland: karen tei Yamashita's *Tropic of Orange* and Theresa Hak Kyung Cha's *Dictee*." *Concentric: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30.1 (January 2004): 149-67. Print.
- Kim, Hyo K. "Embodying the In-Between: Theresa Hak Kyung Cha's *Dictee*." *Mosaic: An Interdisciplinary Critical Journal*. 46.4(December 2013): 127-143. Print.
- Lamm, Kimberly. "Getting Close to the Screen of Exile: Visualizing and Resisting the National Mother Tongue in Theresa Hak Kyung Cha's *Dictée*." *Transnational, National and Personal Voices*. eds. Begoña Simal and Elizabeth Marino.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2004. 43-65. Print.
- Lin, Yi-Chun Tricia. "Theresa Hak Kyung Cha." *Asian American Novelists: A Bio-Bibliographical Critical Sourcebook*. ed. Emmanuel S. Nelson. London: Greenwood Press, 2000. 34-37. Print.
- Williams, Cynthia M. *Diaspora Literature: Unexpressed Discourse and*

Performativity in "Dictee" and "Mulberry and Peach: Two Women of China." Kansas City, Missouri: UMI Dissertation Publishing, 2010. Print.

Wong, Sau-ling. "Denationalization Reconsidered: Asian American Cultural Criticism at a Theoretical Crossroads," *Postcolonial Theory and the United States: Race, Ethnicity, and Literature*, eds. A Singh and Peter Schmidt. Jackson, MS: UP of Mississippi, 2000. Print.

■ 단행본

김종국, 「영상 예술가 차학경: 혁신과 융합의 트랜스미디어」, 『차학경 예술론』, 성남: 북코리아, 2013. 40-60면.

김홍희, 「후기식민주의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차학경의 작품세계」, 『관객의 꿈』, 서울: 눈빛, 2003. 70-83면.

김현주, 「양피지 위에 겹쳐 쓴 두 개의 이름, 차학경과 테레사 학경 차」, 『동시 대 한국 미술의 지형』, 강태희 외. 서울: 학교재, 2009.

정재형, 「호모 코메리카누스, 한국계 예술인 차학경의 자아 찾기」, 『차학경 예술론』, 성남: 북코리아, 2013. 61-85면.

■ 논문

서경숙, 「차학경(Theresa Hak Kyung Cha)의 『받아쓰기』(Dictee)에 나타난 식민화된 여성의 육체」, 『인문학연구』 33권, 2호, 2006, 265-280.

_____. 「차학경(Theresa Hak Kyung Cha)의 영상 실험시에 나타난 정체성과 역사의 문제」, 『현대영어영문학』 57권, 2호, 2013, 101-16면.

